

“바다에 심는 생명, 바다가 품는 미래”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

국민과 함께 아름다운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에서 바다숲을 조성



해양수산부 정영훈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이 '우리바다 희망심기'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비 제막식 모습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월 10일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지자체, 일반 국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2013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여 바다 녹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 5월 10일은 해조류가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로 의미가 있어 바다식목일로 지정

올해 바다식목일에는 갯녹음*으로 황폐해진 연안생태계가 바다숲 가꾸기를 통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바다에 심는 생명, 바다가 품는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식 행사와 함께 잘피, 감태 등 해조류 심기, 해중림 청소 등 7개 권역별 행사가 동

시에 열렸다.
* 바닷속 해조류 군락(바다숲)이 환경 변화 등으로 소멸되어 바다 밑이 사막처럼 변하는 현상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3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대학, 유관단체 등 84개 회원사가 공동 설립한 (사)바다녹화운동본부가 참여하여 우리 바다가 해조류로 넘실거리는 건강한 바다로 되살아나도록 바다숲 조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해중림 조성을 위한 바닷속 암반 녹화용 종묘부착판, 부속자재 등을 개발한 (주)해양이엔지 김윤목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수산자원조성에 기여한 21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도 수여하였다.

이 날 부대행사로 바다숲 가꾸기 체험을 위해 주요 내빈이 서명한 해조류 종묘부착판을 잠수팀이 수중에 옮겨

심는 '우리바다 희망심기'와 해조류 포자 방출을 보다 용이하게 한 '씨드볼'을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국민이 직접 바다에 던져보는 체험 기회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산림녹화의 성공사례를 바다에서도 구현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바다숲 54,000ha 조성을 목표로 연간 3,000ha 규모의 바다숲을 가꾸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111개소

12,200ha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바다숲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누구나 4월 5일 식목일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날이라고 인지하는 것처럼 5월 10일 바다식목일이 '바다숲 가꾸기 날'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다식목일 주간 권역별로 진행된 주요행사

□ 권역별 행사: 7권역 행사

기관	주요 행사	일시	장소
동해남부권	• 해조류(감태) 이식패널 시설	5.10(화)	경북 영덕군 창포항
	• 바다해조장 청소		
	• 바다숲 조식동물 구제작업 (잠수동호회)		
	• 해조종묘 수중저연승 이식		
서해중부권	• 잘피 심기	5.10(화)	충남 서산시 대신읍 모지리(가로림만)해역
	• 바다숲 및 바다식목일 사진전시회		
	• 바다메시지 남기기, 잘피숲 이론 교육		
	• 조간대 바다해조장 청소 등		
서해남부권	• 어린물고기 방류 체험	5.10(화)	전북 부안군 서해생명자원센터
	•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		
	• 바다생태계 벽화 꾸미기 등		
남해동부권	• 해조류(감태, 모자반) 이식패널	5.10(화)	부산시 동삼동
	• 바다해조장 청소 등		
남해중부권	• 해양생물 터치풀	5.10(화)	경남 통영시 항남동 문화마당
	• 바다식목일 관련 사진전시회 및 이식 해조류 전시	5.10(화)	
남해서부권	• 잘피 심기	5.4(수)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 조간대 바다해조장 청소 등		
제주권	• 바다사진전 전시 - 갯녹음, 바다숲 등 자원조성 현황 및 바닷속 생물 전시	5.6(금) ~ 5.12(목)	제주공항 3층 대합실, 제주항 여객터미널
	• 씨드볼 던지기(씨드볼 200개)	5.10(화)	
	• 전북 방류행사(전북 30천 마리)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 일대
	• 바다해조장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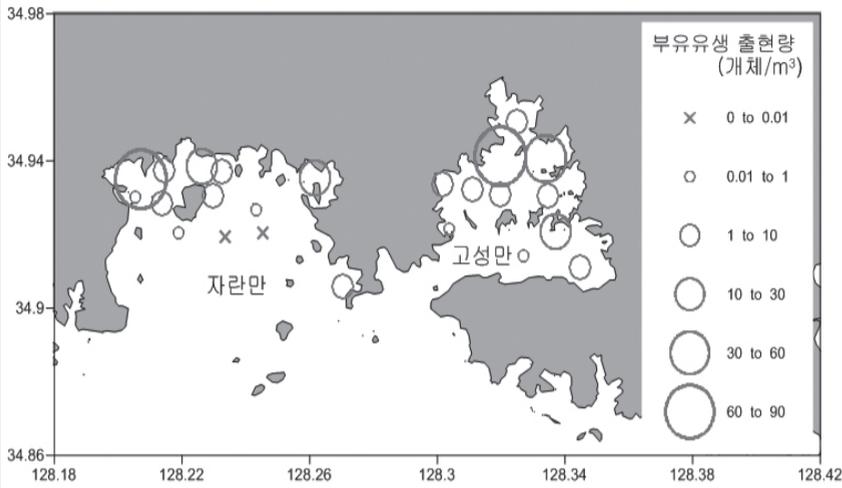
부대행사로 진행된 인공어초 모형 전시현장



해군 군악대 식전행사

올해 남해안 보름달물해파리 대량출현 전망

경남 자란만 및 고성만에서 부유 유생 대량발생 확인



2016년 4월 자란만 및 고성만 보름달물해파리 부유유생 분포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경남 자란만 및 고성만 주변에서 보름달물해파리의 대량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에서 지난 4월 한 달간 해파리가 상승 출현하는 24개소 해역의 부유유생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 부유유생이 경남 자란만은 10개체/m³, 고성만은 16개체/m³가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유생은 5월말경 성체로 성장하는데, 올해 유생발생 밀도로 추정할 때 올해는 성체가 100m² 당 17개체가 발견된 작년에 비하여 약 1.5배 이상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의보 발령 시기도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²)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해파리 주의 경보 발령

** 해파리 성체 예상출현량 산식(개체/100m²)=(0.1949x부유유생밀도+0.1645)÷평균수심x100

보름달물해파리는 독성은 약하나 무리 지어 다니는 경향이 있어 어망 파손, 조업지연 등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6월 10일 경남 고성군에 해파리 주의 경보가 최초 발령된 후 6월 19일에 경남 전 해역으로 확대 발령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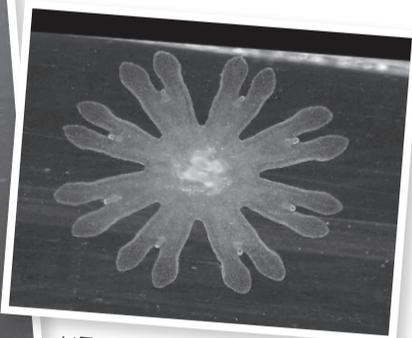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5월 초까지 부유유생 단계의 해파리는 어업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나 5월 하순에는 성체 해파리의 대량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해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성체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주의보를 발령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대량출현 해파리의 이동경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유생(플립) 제거*를 통해 해파리 대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해파리가 발견되면 선박 등을 동원하여 성체를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해파리 유생(플립) 제거사업 (억 원) : ('14) 6 → ('15) 6 → ('16) 14



보름달물해파리 성체



보름달물해파리 부유유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연수 추진
1차 일본, 2차 노르웨이, 3차 중국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지도자 및 구성원들에게 외국의 자원관리 및 우수사례 등을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그 동안 해외연수는 우수공동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나, 금년에는 특별히 신규로 참여한 공동체에도 연

수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수대상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최근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연수실적이 있는 공동체 및 최근 5년 이내에 연수실적이 있는 자는 연수대상자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연수국가	연수시기	연수인원 (어업인기준)	비고
1차	일본	6월 13일(월)~17일(금) 4박 5일	12명	신규공동체
2차	노르웨이	8월 14일(일)~20일(토) 5박 7일	12명	우수공동체
3차	중국	10월 31일(월)~11월4일(금) 4박 5일	12명	우수공동체

자율관리어업 내수면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지속적 참여 유도

해양수산부는 5월 19일 충북 충주 수안보상록호텔에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내수면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및 내수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내수면 공동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자율관리어업 활

성화 및 내수면공동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지 않은 내수면어업계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 3.0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를 잡아 드시나요?

내일을 위해 어린물고기가 충분히 크고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번 알을 낳으면 몇 만 마리의 물고기가 태어납니다.
한번만 참으면 어린물고기는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우리 물에
우리 수산물

인터넷 수산시장 '피쉬세일'이 있습니다.

www.fishsale.co.kr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및 컨설턴트 활동

전문분야 컨설팅 안내

자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 컨설팅이 실시된다. 기 참여 공동체 중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3~5회의 범위 내에서 직접 공동체를 방문하여 공동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전문분야로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분야, 체험 시설 등 관광과 연계한 분야, 공동체 경영분야,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분야 등이 있으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분야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지자체 수산사무소를 통하여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연락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전화 02-589-4604, 4609)

지역담당 컨설턴트, 컨설팅 이외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

지역담당 컨설턴트(12명)는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관할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및 아직 자율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 중에 활동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김동철 컨설턴트

- 2016. 4. 5. / 신안군 귀어인 40명 대상
 - 귀어귀촌 정착을 위한 컨설팅과 발전방안, 자율관리어업 필요성 및 귀어인의 역할
- 2016. 4. 12. / 기룡어촌계 구성원 외 32명 대상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016. 4. 25. / 2016년 신규 어업인후계자 36명 대상
 -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과 어업인후계자 역할



김동철 컨설턴트가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등을 강의하고 있다

▷ 홍종민 컨설턴트

- 2016. 4. 20. / 군산 관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및 사무장 30명 대상
 - 자율관리어업 개요 및 추진방향,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 등 설명



홍종민 컨설턴트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 주창석 컨설턴트

- 2016. 4. 21. / 강원 고성 반암어촌계 구성원 23명 대상
 - 자율관리어업이란 무엇인가, 강원도 자율관리어업 참여현황, 자율관리어업 등급 부여방법, 효율적인 어장환경 보호 및 자원조성 요령, 자율관리어업 추진 시 지원내역 등 설명



주창석 컨설턴트가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임여호 컨설턴트

- 2016. 4. 26. / 순천·광양지역 어촌지도자 35명 대상
 - '16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FTA 동향과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대응방안 등
- 2016. 4. 26. / 경남 관내 16년 신규 어업인후계자 194명 대상
 - FTA 추진동향과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대응방안

▷ 서광일 컨설턴트

- 2016. 4. 28. / 목포낙지연승공동체 구성원 53명 대상
 -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및 공동체 회원들의 역할과 자세

우수공동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희망 공동체는 지자체를 통하여 참가 신청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공동체를 발굴하고, 입상공동체에는 상금 및 지정패를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참여의식을 높이는 한편 우수사례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진대회는 예선(서면평가) 및 본선(공개평가)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전년도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최근 3년 이내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서 최우수·우수장려 공동체로 선정되었거나, 성공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입상한 공동체는 제외된다.

입상한 공동체(최우수, 우수, 장려)에는 소정의 상금 및 지정패가 수여되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패는 10월에 개최되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시 별도로 수여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지자체(수산사무소)를 통하여 해양수산부(또는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문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 4609)

연근해어업 6,100 표본어가 대상 실태조사 추진

어선감척 등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정책에 활용

해양수산부는 4월 말부터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협업으로 6100여 가구의 표본어를 대상으로 연근해어업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어선감척, 어업종류의 통합변경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실태조사가 도입되기 이전의 과거 유사한 통계자료들은 표본수가 한정되어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2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3년부터 연근해어업 실태조사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 제4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근해어업 21개, 연안어업 8개, 구획어업 12개 등 총 41개 연근해 업종으로 12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모집단 대비 표본수는 근해어업 2,315명 중 1,053명(45.5%),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45,469명 중 5,086명(11.2%) 등 총 6,139명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자료의 신뢰도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사분야는 시도별·업종별·규모별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실태, 조업실태, 어업경영 실태, 어구의 사용수량, 감척의사, 폐업지원금 산정 및 감척목표량 추정 등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중요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감척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어업통계 기반이 마련되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구조개선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본 조사가 감척사업 추진을 위한 폐업지원금 산정 등 관련 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연근해어업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조사분야별 세부내용]

과제명	
2015년 이월과제	전남 완도 대야1리어촌계와 대야2리 어촌계간 지선경계선 분쟁
	강원 고성 공현진연승협회와 가진어촌계간 조업분쟁
	경남 고성 정치망어업협회와 연안들망어업협회간 조업분쟁
	완도 약산 화가넙고·천동어촌계간 매생이 양식지 조업분쟁
2016년 신규과제	경기 화성 석촌·매항2리·고온리공동체간 어장개발(면허) 분쟁
	강원 고성 문어연승어업인과 나잠 및 관리선 어업인간 어업분쟁
	경남 남해 대벽공동체 및 가인어촌계와 사천 삼천포 잠수기어업공동체간 조업구역 분쟁
	전남 완도 노화 당산공동체와 노록도 어업인간 양식어장 분쟁

[연근해 허가어업의 종류]

□ 총 41개 업종(근해어업 21, 연안어업 8, 구획어업 12)

구분	어업의 종류	구분	어업의 종류
근해어업 (21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연안어업 (8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연안선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연안자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연안들망어업
	대형선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소형선망어업	구획어업 (12종)	건간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건망어업
	근해자망어업		들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선인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승망류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장망류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지인망어업
	근해통발어업		해선망어업
	근해연승어업	이동성 (3종)	새우조망어업
	근해형망어업		실뽕장어안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패류형망어업
	잠수기어업		

*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제26조(구획어업의 종류)

낚시덕후 아재? No! 낚시가족은 다 모여라

제7회 해양수산부장관 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월 15일 공주시에 소재한 자연농원낚시터에서 낚시객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해양수산부장관 배 전국 민물낚시대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관련하여 낚시산업 육성,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낚시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장관 배 민물낚시대회는 낚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저변을 확대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낚시가 남성 이 즐기는 개인 취미가 아닌 가족단위의 레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체험행사를 포함하여 기획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개인 낚시대회와 함께 가족단위의 낚시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체험교실도 열렸다. 개인 낚시대회는 총 450명이 참여하며 참가 선수는 대회 당일 참가등록과 자리 추첨을 마친 후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잡힌 붕어 중 길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리고, 1등에게는 상장 및 트로피와 함께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보호자와 어린이 등 어린이체험교실에 참여한 200여 명은 낚시 체험 외에도 구명조끼 착용, 낚시어종 계측 등 현

장체험을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수산부 낚시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이덕화 씨가 함께 참여하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과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이덕화 씨를 제1호 낚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였다.

* 낚시명예감시원 :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반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지도 및 계몽 역할을 수행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 낚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이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낚시안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낚시안전 정책 홍보, 안전캠페인 실시 등 국민들의 낚시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모든 참가자들이 대회 결과를 떠나 낚시의 맛과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낚기를 바라며, 그간 낚시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온 낚시에서 가족 중심의 함께하는 낚시로 이미지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마련한다

합리적·객관적인 조사기준으로 어업피해조사 신뢰성 확보

항만사업 시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에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항만사업의 어업피해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달부터 항만공사 현장에서 실제 기준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업피해조사는 「수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13개 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사방법과 기준 적용으로 어업피해조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마련으로 어업피해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표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수행은 항만공사 현장에서 검증조사를 하면서, 어업피

해조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운영을 통하여 의견수렴 및 보완을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해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동해(포항), 남해(부산), 서해(인천), 제주(제주)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항만사업 현장을 선정하여 이뤄진다. 주요 조사항목은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확산 조사, 부유사원단위 산정조사, 오타방지막 효율성 검토, 수치모형 실험 등이며 피해를 추정을 위한 생물검정시험도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허명규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조사를 입체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1→24개 품목으로 확대

능성어·미더덕·오만둥이 신규 도입... 볼락·송어·강도다리 사업지역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 대상을 3개 추가하여 2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굴, 조피볼락 등 21개 품목이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총 3,275어가(전년대비 18.2% ↑)가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적조 등 재해피해를 입은 148어가에 대해 14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16년 양식재해보험사업의 주요 화두는 '대상품목 확대, 보험상품 다양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어가경영 안정'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위하여 지난 3월 29일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개최하여 능성어·미더덕·오만둥이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양식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기타 볼락, 송어, 강도다리 3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입저조 품목에 대한 상품 개정을 통해 보험가입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실제로 2014년 보험상품 출시 이후 가입이 전혀 없었던 다시마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조수(潮水)손해담보특약' 추가 등을 통해 가입률이 10%(64건, 대상어가

650) 증가한 바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신규품목 도입 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운영상 문제점,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어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 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부상하여 가입률이 지속적 증가 추세로 2015년 3,275건(35.5%)에서 2016년 3,885건으로 40% 이상 가입률 증가가 예상된다.

* 가입률(%) : (08) 5.3 → (12) 12.1 → (13) 23.4 → (14) 30. → (15) 35.5 → (16) 40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태풍, 적조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어가의 피해대비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양식어업인 수요에 맞는 상품개정, 보험 수혜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수협중앙회(정책보험부)나 가까운 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가입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요]

◆ 재해양식어가의 어업활동 지원을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임의가입보험(物的보험)

□ (현황) 재해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08)하고, 보험사업 성립을 위해 국가에서 거대재해 위험 부담(국가재보험)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보험사업자 : 수협중앙회

○ 대상품목

- 본사업(전국)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농어, (예정)기타 볼락, 송어, 강도다리
- 시범사업(주산지) : 김, 우렁쉥이, 뱀장어, 미역, 홍합, 다시마, 가리비, 송어, 툯, (예정)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 보상재해 : (주계약)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동해 등 (특약) 수산질병, 전기장치위험, 이상 조류·수온·수질, 조수, 양식시설물

○ 보장수준 : 수산물은 시가의 85~90% 수준, 시설물은 원상복구비 전액

□ (지원)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 및 운영비 전부를 지원하고, 거대재해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 운영

* 지원율(국고) : 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방비로 자담 보험료 50~60% 지원

* 손해율 140% 이상의 거대재해는 국가에서 위험(보험금)을 부담

□ (임의가입) 사유재산(양식수산물·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物的보험이며, 가입여부는 양식어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人的보험은 가입의무 부여(ex. 산재보험, 어선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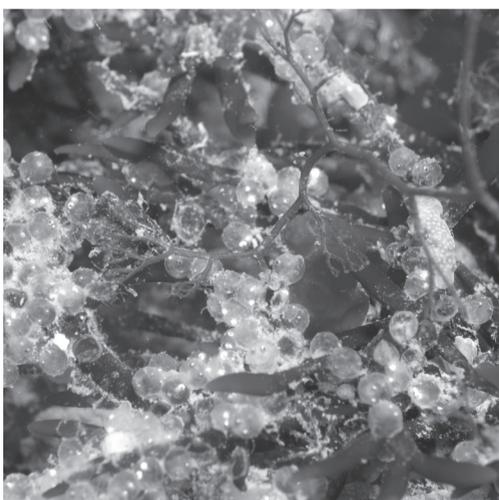
□ (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부상하여 가입률은 지속 증가하며, 재해양식어가의 위기극복 및 경영안정에 기여

○ 지난 8년간(08~15) 총 9,616어가가 자부담 269억원의 보험료를 납부, 자담의 3.4배인 924억원의 보험금(1,076어가)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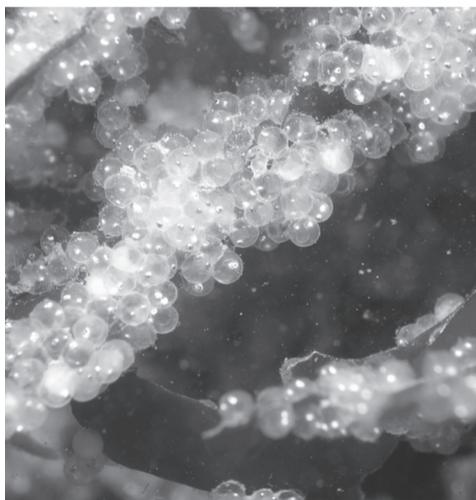
* '15년의 경우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14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148어가)

경남 진해만에서 청어 산란장 확인

대구에 이어 청어도 산란... 진해만 수산자원 보존 위해 지속 모니터링



진해만 일대의 해조류에 부착된 청어 수정란



은까막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어는 성숙한 암컷이 먼저 연안의 해조장 등 부착기질에 점성이 있는 침성란을 붙이고 이후 수컷에 의해 수정되어 10여 일이 지나면 부화하는 산란 생태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동해연구소의 조사결과 진해만 해역은 12월부터 다음해 2월 중순까지 동해로 이동하는 대구의 주요 산란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월부터 2월까지의 청어의 산란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2012년부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부터 6월 초까지 진해만 내 모든 지역에서 어린 대구(치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오는 5월과 6월에는 같은 해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2종의 자치어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청어 어획량은 약 2만6천톤(2015년 기준)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이면서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문태석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진해만은 대구뿐만 아니라 청어도 산란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요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 향후 진해만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어 산란장으로 알려진 동해 영일만, 서해 태안 연안 외에 경남 진해만도 청어의 산란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3월

까지 4차례에 걸쳐 경남 진해만에서 실시한 청어의 서식환경 및 산란장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청어 수정란은 난포리 인근, 함포마을 인근, 잠도 인근 해역의 수심 5m 이내에 분포하는 가지형 해조류인 불

3월 어획량 갈치 늘고, 고등어·꽃게 줄었다

2016년 3월 연근해에서 갈치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0.9% 증가하고, 고등어는 8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3월 어획량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주요 품목별 3월 생산량은 멸치 2,572톤, 붉은대게 2,211톤, 청어 2,032톤, 가자미 1,637톤, 갈치 1,157톤, 오징어 908톤, 삼치 528톤, 고등어 415톤 등이다.

3월까지 누계생산량은 오징어 25,030톤, 멸치 23,192톤, 고등어 17,856톤, 붉은대게 11,078톤,

삼치 9,000톤, 갈치 7,596톤, 청어 4,885톤, 가자미 4,113톤, 참조기 3,296톤 등이다.

* 2월까지의 통계청 어업생산통계(공식통계), 3월은 수협 위판통계(비공식통계)

갈치는 제주 근해연승어업의 생산량은 줄었으나 대형선망어업의 생산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작년 3월 대형선망어업은 고등어(47%)와 전갱이(34%) 위주로 어획하였으나, 올해 3월에는 고등어(42%)와 전갱이(12%)의 어획비율이 감소한 반면 갈치 어획은 작년 2%에서 17%로 증가하였다.

꽃게는 자원량이 낮고 소형개체 비중이 증가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인천해역 자원량 추이(톤) : ('13) 30,620 → ('14) 22,628 → ('15) 15,469

멸치는 적정수온인 11~12℃ 표층이 넓게 분산되어 어군 밀도가 낮아졌으며, 기선권현망어업의 어획노력량도 낮아져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 기선권현망 입항척수(1~3월) : ('15) 816척 → ('16) 460 (전년대비 -37%)

• 연근해 주요 수산물 생산동향 •

- (증가) 붉은대게(978.5%), 갈치(100.9%)
 - (붉은대게) 전년대비 위판실적 보고율 증가에 따른 위판량 증가
 - (갈치) 제주 근해연승어업 생산량은 줄었으나 대형선망어업의 생산 증가
- (감소) 고등어(△82.7%), 전갱이(△73.0%), 멸치(△66.9%), 꽃게(△66.7%)

- (고등어·전갱이) 어장형성 정체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대상종 다변화*
 - * ('15.3.) 고등어(47%), 전갱이(34%) → ('16.3.) 고등어(42%), 갈치(17%), 전갱이(12%) 등
- (멸치) 적정수온(11~12℃) 표층이 넓게 분산되어 어군 밀도가 낮아졌으며, 기선권현망어업의 어획노력량 감소*

* 기선권현망 입어척수(1~3월) : ('15) 816척 → ('16) 460 (전년대비 △44%)

• (꽃게) 자원량*이 낮고 소형개체 비중이 증가하여 어획량 감소

* 인천해역 자원량 추이(톤) : ('13) 30,620 → ('14) 22,628 → ('15) 15,469

• '16.3. 연근해 주요 수산물 생산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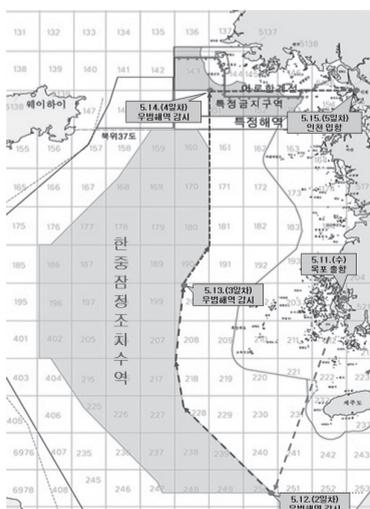
(단위: 톤)

구 분	최근 5년 평균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감(%)		'15년 총생산량	금어기, 휴어기
	3월	누계(~3월)	3월	누계(~3월)	3월	누계(~3월)	3월	누계		
멸 치	1,440	45,088	7,759	50,232	2,572	23,192	-66.9	-53.8	211,575	권현망 ^{81%} (4.1~6.30)
오징어	1,156	53,847	1,901	24,691	908	25,030	-52.2	1.4	155,743	(4.1~5.31)
고등어	6,822	42,680	2,395	25,197	415	17,856	-82.7	-29.1	131,735	대형선망 ^{84%} (4.28~6.4)
갈 치	5,865	10,029	576	4,699	1,157	7,596	100.9	61.7	41,049	-
참조기	1,641	4,865	480	1,842	253	3,296	-47.3	78.9	33,254	근해유자망 ^{82%} (4.22~8.10)
붉은대게	568	7,490	205	7,661	2,211	11,078	978.5	44.6	41,647	(7.10~8.25)
삼 치	5,877	12,311	814	7,880	528	9,000	-35.1	14.2	37,872	-
청 어	3,410	7,279	4,014	10,233	2,032	4,885	-49.4	-52.3	25,903	-
꽃 게	242	379	102	216	34	86	-66.7	-60.2	16,373	(6.21~8.20)
가자미	4,601	8,165	1,894	4,972	1,637	4,113	-13.6	-17.3	14,924	-
전갱이	3,389	7,399	486	4,098	131	2,548	-73.0	-37.8	43,362	-
기 타	251,226	207,193	114,772	168,025	123,682	180,316	7.8	7.3	304,617	-

* 자료 : 2월까지의 통계청 어업생산통계(공식통계), 3월은 수협 위판통계(비공식통계)

중국 공무원,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 조업실태 확인

5월 11일~15일까지 우리 지도선에서 불법조업 지도단속



중국 어업감독공무원이 우리 어업 지도선에 승선하여 자국어선의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월 11일부터 5일간 한중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 입어한 자국어선의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실시했다.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 제의로 시작하여 올해 11회째

인 양국 공무원 간 교차승선은 중국 측이 자국의 불법조업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중국 측 어업감독 담당자(3명)는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1,638톤급)에, 우리 측 담당자(3명)는 중국 북해분국 소속 1103함(1,680톤급)에 승선했다. 특히, 중국 담당자는 최근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주변지역 등에서 지도단속에 참여했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교차승선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인근 해역에서 실시”했으며, “중국 담당자가 자국어선의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게 하여 중국 정부로 하여금 불법조업 개선의지를 이끌어내는데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담보금 납부, 모범선박 등 어공위 합의 사항 세부 이행방안 협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4월 28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실무회의」에서 '15년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주요 합의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한) 임영훈 지도교섭과장, (중) 손해문 농업부 국제협작 및 주변처장

이번 회의에서는 모범선박 지정제도,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및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어공위 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우리 수역 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중국 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

하고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 간 민간어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의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범선박 지정제도

□ 목적

-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조업질서를 유지하고 허가어선의 법규준수 유도 및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조건이 부합되는 일부 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관리

□ 대상선박

- 모범선박의 조건은 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어선이 2년간 연속 입어조업하고, 위반실적이 없는 어선

* AIS(자동식별장치)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모범선박 지정현황

〈우리어선〉												
연도	합계	업종별						지역별				
		저인망	선망	안강망	자망류	뽀시어구	통발	운반선	경남	전남	제주	기타
'15년	120	-	-	-	-	120	-	-	-	-	120	-
'16년	59	-	-	-	-	59	-	-	2	-	57	-

〈중국어선〉											
연도	합계	업종별					지역별				
		단타망	쌍타망	위망	유망	운반선	요녕	하북	천진	산둥	강소
'15년	227	4	139	44	38	2	17	15	16	8	156
'16년	51	-	18	-	32	1	-	15	-	16	20

□ 신청 및 지정 등

- (입어국) 상대국에 입어 신청 시, 조건이 부합되는 모범선박 명부와 AIS 고유번호, IMO 식별번호 등 관련 정보 제공
- (상대국) 입어국의 신청서류를 심사 후 그 결과를 통보
- (유효기간) 조업허가증의 유효기간과 일치

□ 모범선박의 취소

- 위반조업으로 처벌을 받은 어선
- 상대방 EEZ내에서 AIS를 끄거나, AIS를 작동시키지 않은 어선
- 임의로 AIS 정보를 변경한 어선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실시 요령

□ 목적

- 어획물운반선은 상대국 EEZ내 입출역시 반드시 지정된 체크포인트 통과를 의무화하고, 상대국 지도선의 승선조사에 협조토록 규정 - 어획물운반선의 적재량 허위보고 등 불법조업 차단 목적

□ 단속기관

- (한국 측) 서해어업관리단 및 해양경찰청
- (중국 측) 중국해경국

□ 체크포인트(수역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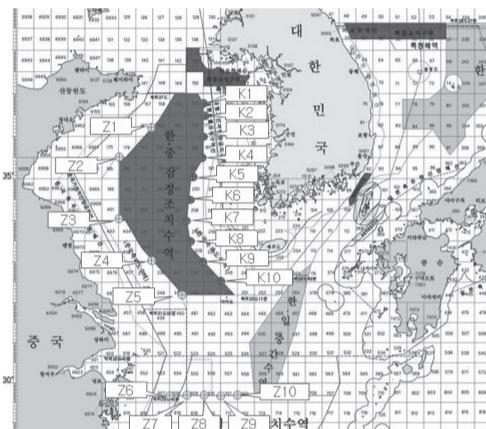
- (한국 측) 10개 좌표(K1~K10)
- (중국 측) 10개 좌표(Z1~Z10)

□ 어획물운반선 입출역 절차

- 상대국 EEZ내 입역전 '입·출역 보고서'에 따라, 체크포인트의 통과 예정시간, 체크포인트 일련번호(경위도) 보고
- 상대국 EEZ 수역 입·출역 시 체크포인트로부터 1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VHF Ch16으로 상대국 지도선을 호출하여 통과예정 시간 및 위치를 보고
- 체크포인트 통과 10분 전 다시 상대국 지도선 호출, 통과예정시간 및 위치보고

- 통과예정인 체크포인트에서 상대국 지도선을 호출하여 응답이 없을 경우 체크포인트 통과

□ 한·중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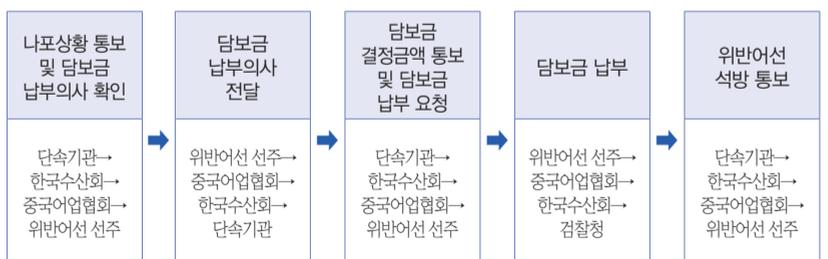
중국 측 체크포인트	한국 측 체크포인트
Z1 : 36° 15'00"N, 123° 00'00"E	K1 : 36° 55'00"N, 124° 25'00"E
Z2 : 35° 30'00"N, 122° 00'00"E	K2 : 36° 30'00"N, 124° 30'00"E
Z3 : 34° 00'00"N, 122° 00'00"E	K3 : 36° 00'00"N, 124° 30'00"E
Z4 : 33° 00'00"N, 123° 00'00"E	K4 : 35° 30'00"N, 124° 30'00"E
Z5 : 32° 20'00"N, 123° 45'00"E	K5 : 35° 00'00"N, 124° 09'00"E
Z6 : 29° 40'00"N, 123° 30'00"E	K6 : 34° 30'00"N, 124° 06'00"E
Z7 : 29° 40'00"N, 124° 00'00"E	K7 : 34° 00'00"N, 124° 02'00"E
Z8 : 29° 40'00"N, 124° 30'00"E	K8 : 33° 30'00"N, 124° 08'00"E
Z9 : 29° 40'00"N, 125° 00'00"E	K9 : 33° 00'00"N, 124° 34'00"E
Z10 : 29° 40'00"N, 125° 30'00"E	K10 : 32° 30'00"N, 125° 05'00"E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 개요

□ 현황

- 효과적인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제12차 한·중 어공위(12.10)에서 양국 담보금 납부창구를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로 각각 지정하고, 양측의 민간 창구간 협의를 거쳐, '14.1.부터 담보금 대납업무 시행 - 중국 어선이 위반조업으로 나포되어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양국의 지정창구를 경유하여 납부토록 합의

□ 담보금 납부절차



□ 담보금 예치

- 중국어업협회는 한국수산회에 담보금 미화 25만불 예치 - 중국 측은 양국 협회간 합의된 예치금액 25만불이 계좌에 상시 예치 되도록 담보금 납부 즉시 예치금 부족분을 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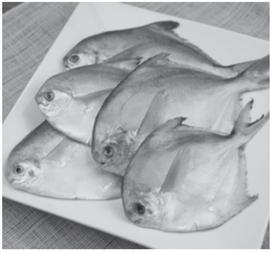
□ 담보금 납부 수수료

- 한국수산회는 중국 어선 담보금 대납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수수료 부과

구분(담보금 기준)	수수료
한화 1억원 이상일 경우	1.5%
한화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일 경우	2%
한화 5,000만원 미만일 경우	2.5%

해수부, 5월 어식백세 수산물 '병어·덕대·다시마' 선정

〈5월의 어식백세 수산물〉



병어



덕대



다시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달콤한 회 맛이 일품인 병어·덕대와 다이어트, 변비에 좋은 다시마를 5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발표했다.

병어는 병어목 병어과에 속하는 흰 살 생선으로 몸은 기다란 난형이며 편평하고 등 쪽이 몹시 튀어나와 있어 몸높이가 높다. 몸 전체에 벗겨지기 쉬운 잔 비늘이 있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등은 청색을 띤 은백색이다. 또한 흰 살 생선 중에서는 지질의 양이 많고 단백질의 양이 적은 편으로, 비타민A가 풍부하여 피부와 점막 장애의 치료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탁월하다. 비타민B1과 B2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되어 어린이나 노인, 회복 중인 환자의 원기회복에도 좋다.

덕대는 병어와 같이 농어목 병어과로 그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나 턱의 모양, 지느러미, 무늬 등으로 구별 가능하다. 생김새가 워낙 비슷하여 예로부터 작으면 병어, 크면 덕대라 구분하였는데 사실 최대 크기나 영양가는 두 종 모두 비슷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덕대 대신 '덕

자'로도 불리나, 이는 방언으로 덕대가 표준어다.

다시마는 지방 함량이 적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 당질이다. 당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 난소화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약 20%를 차지해 다이어트나 변비치료에 효과적이다. 알긴산은 담즙산이나 지방과 결합하여 배설되기 때문에 체내 지방 축적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억제에 효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다시마는 장내 유해물질이 대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짧게 해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한편,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병어, 덕대, 다시마는 5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물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하여 판매한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께 5월의 수산물로 선정된 병어·덕대와 다시마의 많은 애용을 당부드리며, 우리 수산물 섭취를 통해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의 해양생물 '잘피'를 소개합니다

잘피, 산란 서식지 제공 및 건강한 연안생태계 유지에 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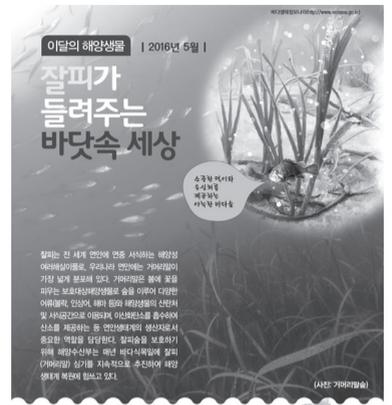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연안에서 바다숲을 이루며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잘피'를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발표했다.

'잘피'는 바닷물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여러해살이풀이로 건강한 연안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해양생물이다. 특히, 잘피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를 제공하고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광합성 작용을 통해 해양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로운 생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는 잘피는 총 9종으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잘피는 거머리말이다. 현재 거머리말은 동서남해안에 걸쳐 넓게 서식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장소가 줄어들어 개체 수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잘피의 감소로 인해 해양생물의 산란 및 생육 환경이 악화되고 생물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잘피숲에 서식하는 부착·저서생물의 감소와 같이 연안생태계의 건강도가 점차 낮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잘피숲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매년 바다



이달의 해양생물 | 2016년 5월 | 잘피가 들려주는 바닷속 세상

식목일을 전후로 잘피 심기를 추진함으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종을 비롯한 해양생태계 복원에 힘쓰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붉은발말뚝계'를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 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생물정보공유앱(마린통)을 통해 '이달의 해양생물 알아맞히기' 이벤트를 시행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도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달의 해양생물 선정을 통해 전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특히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해양생물 안내서 「우리바다 우리생물」 발간

창간호 "제주도 숲섬의 비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찾아서"



필드가이드북 표지 및 내용 「우리바다 우리생물 제주도 숲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생한 정보가 수록된 「우리바다 우리생물」을 발간했다.

「우리바다 우리생물」은 일반인들이 아름다운 바닷 속과 해양생물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이드북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바다에 숨겨진 서식처를 알리고, 일상생활이나 교육현장에서 해양생물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며,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사항을 알리고자 창간됐다.

이번 창간호에는 우리나라 바다 중 해양생물다양성이 높은 제주도 숲섬을 소개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생태사진, 서식형태, 생태 및 분포 등을 수록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해양생물자원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해양생물을 기증·기탁하는 방법, 해양생물을 만나는 방법 등도 수록했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가치 및 그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바다 우리생물」안내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가 자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결과물을 활용해 연간 시리즈 형식으로 발행되었으며, 해양 관련 유관기관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사)한국지속관리어업 연합회 소식란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 실시」

한국지속관리어업연합회는 지난 4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의양2구역 민회공동체 구성원 43명을 대상으로 강원 양양 수산공동체 및 강릉 수산업경영인연합회공동체에서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14~15일 양일간 강원 고성 가진공동체 구성원 31명을 대상으로 충남 보령 무창포공동체에서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